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로 승격해야”



신우철 완도군수와 국토부 주현중 도로국장 등이 완도~고흥간 국도 승격을 위해 최근 고흥군 금산면 신양선착장을 찾았다. (사진=완도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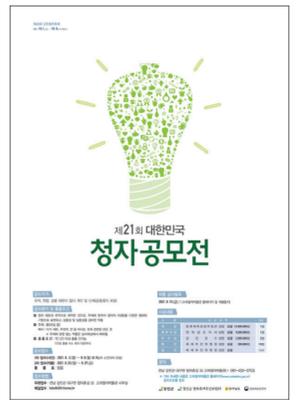
완도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건의 “5개 군 거쳐 3시간 걸릴 거리 30분만에 가능”

완도군이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현중 도로국장이 국도 승격 건의 구간인 고흥군 금산면 신양 선착장을 현장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군수는 “현장까지 5개 군을 거쳐

3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연륙교가 건설되면 30분 만에 올 수 있다”며 “교통망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반영되면 목포~부산 중 유일한 단절 구간(지방도 830호선 완도~고흥 도로)이 연결돼 서남해안 교통망이 구축되고, 연륙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일 생활권이 형성돼 지역 주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관광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국장은 “해당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완도~고흥 국도 승격을 위해 범군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 채택과 심포지엄 개최, 서명 운동 등을 해왔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10월 제21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8회 강진청자축제’의 기획행사 일환으로 제21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과 디자인의 경계에 있는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들의 출품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전통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었던 공모분야를 통합했다.

또한, 명확한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공모전 주제를 “**«(마실 음)»**”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을 접수할 방침이다. 출품 조건은 청자 태도와 유약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제에 맞추어 청자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표현하고, 상품성 및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이면 국적, 연령에 제한 없이 응모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출품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작성 후 1차 서류접수를 고려청자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작품접수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9월 10일에 발표되며, 입상작품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려청자다지탈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총 상금 2,20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대상 1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특선 10명은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자는 16명 내외로 상장이 수여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자 단일 분야로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유일한 공모전이 새롭게 바뀐 방식을 통해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공모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새롭고 참신한 작품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군내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110억원 확보

침수 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2023년 사업 완료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에 선정돼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100% 국비로 추진되는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진도군 군내지구는 군내 간척지 일부와 배후지 농경지 173ha에 총사업비 11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세부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사업을 착공,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된 고군지구(292ha, 150억원)와 의신지구(137ha, 84억원)는 총 234억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침수 피해 농경지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경지 침수 피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오늘부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영림바우처 100만 원·소규모 한시 경영 바우처 30만 원 지원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산림청에 등록된 임업 경영체 등록자 및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에 한함)에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 원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30㎡~5,000㎡(표고버섯 20㎡

~5,000㎡) 미만을 재배하는 농산촌 지역 거주자(읍 단위 이하)로, 임업·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가에 30만 원을 선불카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여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 경과 후 잔액은 환수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김치수출단지 조성 속도 높인다

분야별 의견수렴 간담회 잇따라 갖고 농식품부 국고 건의



해남군이 김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연달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해남군 김치 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2지구내에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군은 올 초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국고건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광주광역시 세계김치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R&D센터 유치 등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일에는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식품산업연구소, ㈜대상, 화원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원부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수출대상 국가별 맞춤형 레시피 개발, 장기간 유통에 따른 품질 안전성 유지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원료수급 안정화, 해남김치 품질 차별화, 제조공정 선진화, 김장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유치타당성 등을 개발할 용역실시도 검토 중으로, 국비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해남 배추 소비진작은 물론 김치 산업이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